

“수출 7000억 달러 눈앞… ‘1조 달러 시대’ 정책 필요”

이 대통령, 수보회의서 협력 당부 물가 안정 위해 선제적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민·관 차원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

가했다”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라고 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

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빛의 혁명’ 행사와 관련,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아미 기자

기미독립선언 불교계 대표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

보훈부, 고향 전북 장수군에 건립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하고 독립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백용성 스님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祖師) 기념관’ 개관식이 4일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열렸다.

장수군 출신인 스님은 독립운동과 민중 계몽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불교계 인사다. ‘대각교(大覺敎) 운동’을 이끌며 불교 정화와 대중불교 전환을 위해 노력했던 스님은 기미독립선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만주에 농장을 마련해 일제 탄압을 피해 유랑하는 동포들에게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경남 함양에 설립한 농장의 수익금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을 위한 헌신을 이어갔다. 정부는 스님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전북 장수군에 건립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전경. 보훈부 제공

이날 문을 연 기념관은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주도로 지상 2층, 연면적 994.8㎡ 규모로 세워졌다. 1층은 강당·사무실·수장고 등으로 구성됐고, 2층에는 스님의 독립운동 공적과 불교 대중화 운동 등 주요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영상이 마련됐다.

강운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스님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이 개관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많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하얀 옷 갈아입은 한라산 제주도 산지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해제된 4일 오전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이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부산 이전·정부조직 개편…방 윙기는 ‘세종 청사’

기능 연계 위해 부처별 동일 건물 배치 부서별 분리된 사무공간 집약화 원칙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4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

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2026년 1월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해 재정경제부가 있는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출범일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간은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 사용 후 정식 입주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부서가 사용하던 중앙동 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이전 배치된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옮겨 한 건물에서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이 통합 추진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종시 반곡동의 한 건물을 사용해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과 부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있는 11동으로 이동한다.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11동)는 4동으로 이전한다. 연합뉴스

군인공제회, 한파 속 온기 나눔 자원봉사단, ‘사랑의 밥퍼’ 활동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인공제회 자원봉사단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군인공제회는 4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을 전날 서울 동대문구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재관 이사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자원봉사단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께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 손질, 밥 짓기, 배식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군인공제회 봉사단은 2015년부터 밥퍼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께 온정을 전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

인공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명절마다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위문 봉사를 비롯해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장애인 복지관 기부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국군장병 위문을 꾸준히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초급 간부를 위해 개회회생 비용을 지원하는 회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아미 기자